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방 하 용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Cooperation Measurement Between China
and Korea Service Industry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방 하 용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전 의 천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방 하 용

방하용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분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재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전의천 인

201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국문요지	1
ABSTRACT	3
제 1 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 2 장 서비스무역의 동향과 발전현황	10
제1절 서비스무역의 특징 및 분류	10
1. 서비스무역의 특징	10
2. 서비스무역의 분류	13
제2절 서비스무역의 동향	16
1. 세계 서비스무역의 동향	16
2. 중국 서비스무역의 동향	19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동향	22
제3절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24
1. 한국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	24
2. 한국정부의 개방정책 방향	25

제4절 중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26
1. 중국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	26
2. 중국정부의 개방정책 방향	29
1). 중국정부의 5개년 계획	29
2). 중국정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시행	36
제 3 장 한·중 서비스산업의 협력방안	42
제1절 한국측의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42
제2절 중국측의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44
제 4 장 한·중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제1절 한·중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49
제2절 한·중 서비스산업의 개선방안	52
제 5 장 결론	55
참고문헌	57
감사의 글	60

<표 목 차>

<표2-1> 서비스의 정의	11
<표2-2> UR에서 서비스 분류	14
<표2-3> 서비스의 분류	14
<표2-4> 국가(지역)별 서비스무역 수출과 수출증가율의 현황	16
<표2-5>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금액	17
<표2-6> 2014년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국가 TOP20	18
<표2-7> 1990-2014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동향	20
<표2-8> 중국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입 동향	21
<표2-9> 한국서비스산업의 GDP와 취업 비중 및 무역현황	23
<표2-10>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입 세계 순위(2000-2014)	26
<표2-11> 2015년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국가 순위	27
<표2-12> 중국 국내 생산총액 산업구성(국내 생산총액=100)	28
<표2-13> 전면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발전이념 35	
<표4-1> 한국 대 중국 서비스투자 추이	49
<표4-2> 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 총액(2000-2010년)	50
<표4-3> 한중 양국의 서비스 교역 현황(2007~2012년)	51

국문요지

중국은 1987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시장개방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특히 덩소평(鄧小平)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 정책에 따라 중국의 시장체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혼합형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의 제정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정부의 발전계획을 알리고 각 지방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정부 계획에 부응하는 시장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시장을 조절하며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주도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WTO 160개 세부항목 중에서 62.5%에 해당하는 100개 항목 이상을 개방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소비 및 서비스 중심의 정책 전환에 따라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서로 결합하여 많은 신흥 서비스산업이 탄생하였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으로 신흥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어 전통적인 서비스부문의 운송과 여행 등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부문인 서비스산업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역사적인 축적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중국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새로운 대외개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으로 기본방향을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구 건설,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을 개방형 신경제체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개방형 신경제체제에 따라 중국 서비스산업은 급속하게 경제에 보완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992년에 한·중 양국 수교 후에 경제협력 규모는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2012년 10년 동안 한국 서비스 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가율은 25.2%를 기록하였고, 2012년 양국 간 서비스무역 규모는 28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대중 투자규모는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서비스산업 중 해외투자의 8.1%를 차지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한·중 FTA가 정식 발효하였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통신, 투자, 금융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서적과 보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고 한국 국회도서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상무부, 중국 국무원, 중국 바이두 백과 등 한국 국내외 관련 기관의 웹 사이트, 통계연감,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ABSTRACT

Study on Cooperation Measurement Between China and Korea Service Industry

FANG HELONG

Advisor: prof. Jun, Eui-Cheon,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China is rapidly developing its economy after reform and opening in 1987. The market opening level is continuously improved. In particular, China 's market economy can not be defined simply after the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policy is supplemented by Deng Xiaoping. Because China combines the merits of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with the macro economy of socialism, this new kind of economic style should be defined as mixed market econom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Five-Year Plan' policy, the Chinese people are informed about the government's economic plan. The policy implemented power is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but the local government is gu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we are trying to build a market that can be applied by all people, and the same time drive the market economy by its own rules.

China has been one of member of the WTO since 2001,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s reform and opening policies , and more than 100 out of 160 WTO categories has been accepted in china, which takes up over to 62.5%. According to commercial status and service industry`s rapid development, china`s policy change and trade construction adjustment have been adjust accordingly. In particular,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development are combined with the service industry, many new emerging service industries are born.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China's service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unbalance. The transportation sectors and travel sectors which are traditional service sectors but take up a larger of proportion. On the other hand, the new emerging sectors, this is to say, the service industry, are in a weak position. However, there will be further development in the service industry in China in the future through combining the accumulation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i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es on Chinese service industry which is relative to relevant books, reports, academic papers and also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es such as school libraries,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esearchers,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the State Council of China, Baidu Baik of China, and website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and abroad, statistical yearbooks, statistical data and reports.

Through this study, we will draw a conclusion that he Chines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rovide active policy support for the service industry in the future by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 Chinese service industr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by December 20th, 2015.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nters into each other's markets, and the service industry must develop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 quantitative competi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업종 중에서 서비스무역이 약 70%를 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요 선진국가의 서비스무역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1990~2011년 기간 증가율은 19.4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무역은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전체 수출 규모가 전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무역구조와 무역정책의 조정에 따라 서비스무역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WTO 160개 세부항목 중 62.5%에 해당하는 100개 항목을 개방하였다. 세계무역 자유화에 따라 중국 서비스무역도 점차 자유화를 실행하였다. 2005~2009년까지 서비스무역 수출액이 세계 서비스무역의 연평균 2배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무역의 수출 순위가 8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다.

글로벌 서비스무역의 발전 속도에 비해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늦은 편이지만 최근 발전 속도가 빠르다. 1990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총액은 98.29억 달러, 2003년 1,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1023.8억 달러로 상승하였고 2011년 4190.9억 달러로 증가하여 그동안 증가율이 19.44% 기록하였다¹⁾. 그러나 중국 서비스무역에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으며, 화물 수출의 50% 밖에 안 된다.

현재는 금융, 보험, 컴퓨터 및 정보, 상담 등 기타상업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서비스무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운송과 여행 등 전통 서비스산업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중국 서비스무역에서 운송과 여행은 각각 21.3%, 44.5%를 점하고 있다. 2012년 서비스무역의 수출입이 각각 5위와 3위를 있지만 서비스무역에서 운송이 26.5%, 여행이 32.3%를 차지하고 있다²⁾.

1)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中国商务部 데이터 참조 정리.

중국 경제가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7% 정도로 중속 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무역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수입은 전년 대비 18.4%가 감소하였다. 국내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정책 전환과 무역구조 조정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5~2014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높은 연평균 16.5% 증가하였고 2014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에 이르고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서비스부문의 운송과 여행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랜 역사에서 축적된 요소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신흥부문에서 향후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된다. 첫단계는 계획경제를 주체로 하여 시장경제를 보조적으로 시행한다. 두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경제를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상품의 경제를 시행한다. 세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시행과 개혁·개방에 따라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계획경제(規劃經濟)로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을 점차 개방하고 있는데, 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계획(計劃)이란 용어는 계획(規劃)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도적인 위치에서 인도적인 위치로 역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12차 5개년 계획부터는 서비스산업 중점 육성방침을 설정하고 전면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Custom Union)을 포함하는 FTA가 확대되고 있다³⁾. 한·중 양국에도 2012년 5월부터 회담을 시작하여 2015년 6월 양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정식 발효하였다. 한·중 FTA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 금융, 투자와 통신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에 대해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의 상호 보완성 강화 등으로 양국은 무역영역을 계속적

2) 中国商务部 데이터 참조 정리.

3) 박정수 외 7인, “한중FTA 서비스 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ISSUE PAPER, 산업연구원, 2014, p.9.

으로 확대해 왔으며, 급속한 발전으로 수교 이후 20여년 사이에 무역액은 약 50배를 증가하였다. 한·중 FTA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실업문제에 도움이 되고 양국 간 경제환경을 호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서비스무역이 더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새로운 대외개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으로 기본방향을 구축하고 FTA, 자유무역구(自由貿易區) 건설⁴⁾, 개방형 신경경제체제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⁵⁾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서비스산업은 개방형 신경경제체제에 따라 급속적으로 보완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한·중 서비스산업, 서비스무역이 관련 전문서적과 보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 문헌연구 기초로 하고 한국 국회도서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중국 국무원, 바이두 백과 등 한국 국내외 관련 기관의 웹 사이트, 통계연감,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강같은 내용으로 총 5장으로 구성 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 배경 및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은 서비스무역의 특징과 분류, 동향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한국과 중국 서비스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은 한·중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4) 2015 12 17 (国.务.院) 신(新)대외개방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구 시행 가속화 전략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함. 중국의 자유무역구 전략은 2007년 10월에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제기된 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유무역구 전략이 중국의 개혁 심화 및 신(新)개방경제체제 구축의 주요 원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5)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B&R)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최고 지도자가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한·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경(2008)은 “중국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분석”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의 전통 서비스상품을 수출하여, 고부가가치의 신흥 서비스상품을 수입하며, 이런 불합리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의 높은 수준 추진에 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확대되어 중국 서비스산업 및 무역의 발전, 그리고 중국경제 전반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⁶⁾

홍동문(2004)은 “한중 서비스업의 및 생산현황 비교분석”에서 한·중 양국의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현황을 제시하였다. 중국과 대비하여 한국은 이미 선진국형의 산업구조로 점점 이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제1산업과 제조업을 합한 총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중 양국 간 교역에서 서비스산업 부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일정시점에서는 상품교역의 비중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였다.⁷⁾

박상찬(2011)은 “한중 서비스산업 경쟁력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에서 양국의 서비스산업 특징 및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고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및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중심의 경제정책은 한국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한·중 양국의 서비스산업은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호 협력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⁸⁾

박정수(2014)는 “한·중 FTA 시대의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에서 중국은 12.5 계획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였으며, 한국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경쟁력 제고 또는 글로벌화의 대응이라는 한·중 양국의 상호 이익을 추구할

6) 이은경, “중국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분석”, 『비교경제연구』, 제15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8.
 7) 홍동문, “한·중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생산 현황 비교분석”, 『지역발전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7호), 한국지역발전학회, 2004.
 8) 박상찬, “한·중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⁹⁾

최문·김상호·이천국(2011)은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에서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을 중국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두 축의 하나로 부각한 중국의 서비스시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기존 연구서와 논문은 한·중 서비스산업에 관한 연구이었으나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서비스무역을 분석하며, 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문제점 및 정부정책 등을 검토하여 한·중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9) 박정수, “한·중 FTA 시대의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 중국산업경제브리핑, 산업연구원, 2014.11.24.

10) 최문 외 2인,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비교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3.

제2장 서비스무역의 동향과 발전 현황

제1절 서비스무역의 특징 및 분류

1. 서비스무역의 특징

국제거래에서 물품거래는 유형무역(visible trade)으로 분류하고, 서비스거래는 무형무역(invisible trade)으로 분류하여 서비스의 제공 또는 소비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통이나 금융, 운송, 건설과 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지칭한다¹¹⁾. 서비스무역은 서비스의 형태에 따른 제품이나 무형의 기능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제조업에 비해 제품의 특성이나 수출형태 등이 더 다양하며 복잡하다.

서비스무역은 무형이므로 비정형적이며 무역장벽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무역장벽은 국경 외에도 제도나 규정, 관습, 생활양식 등 일반상품보다 다양하고 자유화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무역 불균형이 일반 상품보다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무역거래 대상으로 부각된 이후 1990년대 말에는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무역장벽과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지적소유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에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체결되었다¹²⁾.

스테른·호크만(Stem and hoekman)은 서비스무역을 ‘국내 생산요소의 서비스 활동이 있는 곳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

11) 황야난, “중국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 p.7 참조 정리.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7691&cid=40942&categoryId=31864> 네이버 백과사전 ‘서비스무역(service trade)’의 정의.

13) 김한민 외 3인, “서비스무역 연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Stem R.M and Hdekman B.M ‘Issues and data Needs for GATT Negotiations on Services’, The world Economy, Vol.10 No.1, 1987, p.42.

또한 상품무역에 대한 용어로 서비스의 국제교역 시 넓은 의미로는 무형무역을 가리키나 좁은 의미로는 국제수지표의 무역외 수지항목(무형무역에 해당)에서 정부 거래와 투자수익 등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을 말한다. 용역거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 그리고 여행경비, 대리점 수수료, 컨설턴트, 의료, 회계처리 등의 수취 및 지급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¹⁴⁾ 한국의 ‘국민경제 체제 2005’에서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서비스의 정의

구분	내용
운수서비스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해상, 육상, 항공 및 내륙수로, 파이프 라인 등)을 이용하여 재화 및 여객의 운송, 선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포함
보험서비스	수출입 재화에 대한 화물보험서비스, 기타 형태의 원수보험서비스(생명, 손해보험 포함)와 재보험 관련 서비스도 포함
통신서비스	우편 및 송달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음성·영상·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신 및 거주자 간에 제공된 통신서비스관한 유지보수)
건설서비스	건설사와 그 직원이 일시적인 해외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치작업에 대한 수입을 포함하며, 그러나 해외자회사 또는 특정요건을 갖추어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비법인 현지사무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등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신용장, 신용한도, 금융리스서비스, 외환거래, 소비자신용·기업신용서비스, 중개서비스, 증권인수, 서비스 각종 헷지거래 계약 등에 관련된 커미션과 수수료
기타사업 서비스	상인, 딜러, 상품중개인, 대리인과 비거주자 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의미

14)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21.

운용리스 서비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와 철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중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
개인·문화 오락서비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에는 영화나 비디오테이프 제작관련 서비스, 영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음향 레코딩 제작 관련 서비스가 포함 됨. 기타 문화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 스포츠 활동 등이 포함
여행서비스	1년 미만 방문기간 중에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 유학 및 치료 목적의 환자 1년 기준에서 제외
정부서비스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원조사절단, 해외주재의 정부 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 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

자료: KOTRA,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8-017, 2008, pp.24-25(재인용).

제조업은 주력산업의 경제환경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국민경제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대 한도로 성장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명확히 나타남에 따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증대는 한편으로 물품무역의 증대를 촉발하고 물품무역의 증대는 다시 서비스무역의 증대를 촉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비스무역이 갖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는 기업집단의 국제적인 경제활동은 데이터의 전송 및 처리, 통신망의 이용, 경영에 대한 국제적 법률자문의 수요증가를 요구하는 등 기존에는 국경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었던 부분의 무역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서비스무역은 그 어떤 부문보다도 중요한 무역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4배 이상 늘었고, 상품무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웹 기반 서비스에 관련된 기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한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 운송, 원거리 통신 등 많은 분야의 규제가 철폐되고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가나 정부 기관들이 서비스 무역을 통제했지만, 오늘날에는 해외의 민간업체들에게 점점 개발되고 있다.

서비스는 재화와는 달리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무역만의 무형성이 나타난다. 무형성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근접 필요성 때문에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생산자 일방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를 생산과 함께 제공할 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동일한 공급자도 각각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나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서비스의 일질성이다. 또한 상품의 경우 판매하지 않는다면 재고로 보관할 수 있고, 서비스는 보관할 수 없는데, 이는 서비스의 소멸성이다.

2. 서비스무역의 분류

1990년대 초 진행된 GATT 제9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서비스무역에 새로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 동안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변화한 것이다. 1993년 12월 UR 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적인 출범하면서 시장개방 분위기를 조성하였다.¹⁵⁾

UR는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UR 협상에서는 서비스를 12개 부문으로

15)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다.

나누고 있는데,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UR의 서비스 분류

분 야	하 위 분 류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임대, 연구개발 기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우편, 통신, 시청각, 기타 서비스 등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빌딩과 일반토목엔지니어링, 설치와 조립 및 빌딩 완성과 마무리 작업, 기타서비스
유통서비스	위탁에이전트, 도·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및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하수, 위생 및 유사, 폐기물 및 기타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병원, 사회, 기타 인간건강, 기타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업, 여행가이드, 호텔 및 레스토랑,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유흥, 뉴스에이전트,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기타 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상, 항공, 우주, 철도, 도로, 내수면, 관로, 운송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자료: 김영한,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7(재인용).

또한 서비스의 무형성 특징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학자들의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서비스의 분류

학자	분류기준	분류	주요내용
엘프링 (Elpeuring)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나 활동	생산자 서비스	중간재투입재적 요소 서비스: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유통 서비스	유통 및 운송 관련 서비스:

			도매와 소매업, 통신업, 운송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가사서비스업 등
		개인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의료보험, 교육 등
		사회 서비스	
그루벨과 위키 (Geurubel, Woki)	지출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구매서비스(엘프링의 개인서비스): 금융·보험업, 호텔, 이·미용업
		생산자 서비스	요소 및 중간투입서비스: 광고, 회계, 정보통신 등
		정부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엘프링의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 국방, 치안 등
하타 (Mohammad Hatta)	매매대상	물적 서비스	물자매매수단 서비스: 임대 및 리스, 오락, 게임 등
		인적 서비스	인간행위관련 서비스: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이·미용업 등
		시스템적 서비스	조직화된 제도적 서비스: 정보통신업, 보험업 등
힐(Rowland Hill)	영향을 미치는 대상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간투자성격 서비스: 금융, 수리, 컨설팅 서비스 등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소비자·물리적·심리적 상태관련 서비스: 여객운송, 교육, 의료, 통신 등

자료: 김우규, “서비스무역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p.683(재인용).

제2절 서비스무역의 동향

1. 세계 서비스무역의 동향

경제 세계화의 과정에서 먼저 무역의 세계화가 표명되었다. 각국의 상품이 자국에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른 국가의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경쟁은 처음에는 유형상품들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형상품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이 유형무역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각국 정부가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에 따라 세계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70년 국제 서비스무역의 수출액이 710억 달러, 1999년에는 13,400억 달러를 달성하여 29년 동안 17배로 성장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이 10.7%로 당시에 세계 GDP 연평균 증가율과 유형무역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무역은 세계무역에서 70년대의 20%를 넘어 90년대에는 25%로 증가하였다. 90년대부터 세계 산업구조에서 제3산업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세계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이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선진국이 79%, 중진국이 53%, 후진국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서비스 무역의 수출액과 수출증가율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국가(지역)별 서비스무역 수출과 수출증가율 현황

국가(지역)	수출액 (억 달러)	세계의 비율(%)	수출증가율(%)			
			2005-2014	2012	2013	2014
미국	6860	14.1	8	4	5	3
브라질	400	0.8	12	5	-2	6
유럽(28개국)	21530	44	8	5
독일	2670	5.5	6	-3	8	5
영국	3290	6.8	4	1	3	4
프랑스	2630	5.4	6	0	7	4
러시아	660	1.4	10	7	12	-5
아프리카	940	1.9	6	7	-4	3
중동	1240	2.6	...	4	2	6
중국	2220	4.6	11	17	-4	8

일본	1580	3.3	5	-3	1	19
인도	1540	3.2	13	5	2	4
한국	1060	2.2	9	8	7	2
호주	520	1.1	6	3	0	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에 따라 지식경제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서비스무역도 첨단기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기술, 금융서비스, IT산업 등 모두 서비스무역의 대표적인 부문이다. 서비스산업과 첨단기술이 서로 협력하고 금융의 전자화, 통신산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80-2014년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이 <표 2-5>와 같이 서비스무역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신흥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2-5>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금액

(단위: 억 달러)

년도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금액			
	총액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기타 서비스
1980	7707	3020	2117	2570
1985	7857	2763	1979	2699
1990	16117	4855	5267	5995
1995	23733	6669	7800	9264
2000	29548	7656	9174	12718
2005	48964	12506	13526	22935
2010	74330	17873	18090	38367
2011	83005	19970	20122	42913
2012	85022	20350	21053	43619
2013	89650	20719	22264	46667
2014	96020	21537	23822	50661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서비스무역의 주요 시장은 선진국들이지만 개발도상국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학기술, 자본 등이 여러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화물무역보다 서비스무역이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순위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2014년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국가 TOP 20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출국가 (지역)	금액	비율 (%)	증가 율(%)	순위	수입국가 (지역)	금액	비율 (%)	증가 율(%)
1	미국	6860	14.1	3	1	미국	4540	9.6	4
2	영국	3290	6.8	4	2	중국	3820	8.1	16
3	독일	2670	5.5	5	3	독일	3270	6.9	1
4	프랑스	2630	5.4	4	4	프랑스	2440	5.1	6
5	중국	2222	4.6	8	5	일본	1900	4.0	12
6	일본	1580	3.3	19	6	영국	1890	4.0	-1
7	네덜란드	1560	3.2	11	7	네덜란드	1650	3.5	8
8	인도	1540	3.2	4	8	아일랜드	1420	3.0	16
9	스페인	1350	2.8	5	9	싱가포르	1300	2.7	0
10	아일랜드	1330	2.7	9	10	인도	1240	2.6	-1
11	싱가포르	1330	2.7	2	11	러시아	1190	2.5	-5
12	벨기에	1170	2.4	4	12	한국	1140	2.4	4
13	스위스	1140	2.3	2	13	이탈리아	1120	2.4	4
14	이탈리아	1140	2.3	2	14	벨기에	1080	2.3	4
15	홍콩(중국)	1070	2.2	2	15	캐나다	1060	2.2	-5
16	한국	1060	2.2	3	16	스위스	930	2.0	2
17	룩셈부르크	980	2.0	11	17	브라질	870	1.8	5
18	캐나다	850	1.7	-4	18	홍콩(중국)	780	1.6	2
19	스웨덴	750	1.5	3	19	아랍 에미리트	720	1.5	...
20	덴마크	720	1.5	2	20	스페인	720	1.5	11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세계 주요 서비스무역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서비스 수출에서는 미국이 6,860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의 14.1%로 세계 1위를, 영국이 3,920억 달러로 6.8%, 독일이 2,670억 달러로 6.3%로 세계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에 서비스무역 수출이 2,222억 달러로 4.6%의 비중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1,580억 달러로 3.3%, 인도가 1,540억 달러로 3.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세계 6위와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수입에 있어서도 미국이 4,540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 수입의 9.6%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3,820억 달러로 8.1%의 비중을 차지하여 수출 순위보다 더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이 3,270억 달러로 6.9%, 프랑스가 2,440억 달러로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중국이 2위, 일본이 1,900억 달러로 4.0%, 인도가 1,240억 달러로 2.6%의 비중으로 세계 서비스무역 수입의 5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무역 수출은 1,060억 달러로 2.2%, 서비스무역 수입에서는 1,140억 달러로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수출에서 세계 16위이고 수입은 12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중국 서비스무역의 동향

중국은 개혁·개방 전에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이 국가독점 상태이거나 국유화되어 외국자본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에 따라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과 맞물려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87년 개혁·개방부터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다음 <표 2-7>과 같이 2002-2008년까지 서비스무역의 연 수출입액 증가율은 약 20%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 연 증가율이 30%를 초과하였다. 1990년에 비해 2000년의 서비스무역 수출액은 6배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9배 증가하였다. 2003년에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은 1,0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6년에는 수입액은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7년에 서비스무역 수출액은 1,217억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9년에 서비스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의 비중은 전년보다 수입 비중이 0.6% 증가하였다.

<표 2-7> 1990-2014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동향

년도	수출입 금액			수출 금액			수입 금액		
	금액 (억달러)	증가율 (%)	세계의 비중(%)	금액 (억달러)	증가율 (%)	세계의 비중 (%)	금액 (억달러)	증가율 (%)	세계의 비중(%)
1990	98	21.0	0.6	57	26.7	0.7	41	13.9	0.5
1995	430	33.5	1.8	184	12.2	1.6	246	55.7	2.1
2000	660	15.4	2.2	301	15.2	2.0	359	15.8	2.5
2001	719	9.0	2.4	329	9.1	2.2	390	8.8	2.6
2002	855	18.9	2.7	394	19.7	2.5	461	18.1	3.0
2003	1013	18.5	2.8	464	17.8	2.5	549	19.0	3.1
2004	1337	32.0	3.1	621	33.8	2.8	716	30.5	3.4
2005	1571	17.5	3.2	739	19.1	3.0	832	16.2	3.5
2006	1917	22.0	3.5	914	23.7	3.2	1003	20.6	3.8
2007	2509	30.9	3.9	1217	33.1	3.6	1293	28.8	4.1
2008	3045	21.4	4.1	1464	20.4	3.9	1580	22.2	4.5
2009	2867	-5.8	4.5	1286	-12.2	3.9	1581	0.1	5.1
2010	3624	26.4	5.1	1702	32.4	4.6	1922	21.5	5.5
2011	4191	15.6	5.2	1821	7.0	4.4	2370	23.3	6.1
2012	4706	12.3	5.6	1904	4.6	4.4	2801	18.2	6.8
2013	5396	14.7	6.0	2106	10.6	4.6	3291	17.5	7.6
2014	6043	12.6	6.3	2222	7.6	4.6	3821	15.8	8.1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중국 서비스무역의 세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비율보다 수입비율이 더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산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주요국이 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5,396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표 2-8> 중국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 금액				수입 금액			
	총액	운송 서비스	여행 서비스	기타 서비스	총액	운송 서비스	여행 서비스	기타 서비스
1980	3671	1339	1035	1297	4036	1681	1082	1273
1985	3835	1245	1160	1430	4022	1518	1126	1378
1990	7887	2227	2632	3028	8230	2628	2635	2967
1995	11781	3020	4005	4756	11952	3649	3795	4508
2000	14910	3464	4762	6684	14638	4192	4412	6034
2005	28418	6357	7591	14470	26596	7586	6939	12071
2010	38197	8067	9495	20635	36133	9806	8595	17732
2011	42583	8793	10669	23121	40422	11177	9453	19792
2012	43499	8919	11107	23473	41523	11431	9946	20146
2013	46250	9000	11750	25500	43400	11719	10514	21167
2014	48615	9411	12343	26861	47405	12126	11479	23800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행하고 WTO 160개 항목 중 100개 항목 이상(62.5%)을 개방하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세계무역 자유화에 따라 중국 서비스무역도 점차 자유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국 서비스무역 비중이 불균형하여 <표 2-8>과 같이 전통 서비스무역인 운송과 여행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흥부문은 역사의 축적과 과학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과학기술 혁명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 정도로 중속 성장시대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5년 수입은 전년 대비 18.4% 감소하였다.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소비 및 서비스 중심의 정책 전환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2월에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若干意见》을 비준하였는데,¹⁶⁾ 이에

16) 国务院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若干意见 国发〔2015〕8号

따라 서비스무역이 발전하고 경제구조의 구조조정이나 취업문제 등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 정책의 제정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정부의 전략계획을 알리고 지방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기업에게는 정부의 계획에 맞는 시장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계획’이란 용어를 ‘규획’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도적인 위치에서 인도적인 위치로 역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차 5개년 계획부터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의 중점 육성방침을 설정하고 전면적으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 한국 서비스무역의 동향

1960년대부터 선진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비스 수입이 앞지르면서 서비스 수지가 적자에 들어서게 되었다.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서비스산업이 확대됨으로써 서비스산업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의 거래비용은 감소하였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 양허안을 2003년 3월 확정하고 2004년 협상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기존 라운드 대신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여 다자간무역협상을 시작하였다. 서비스협상은 건설과 통신, 유통과 해운, 금융, 교육, 시청각, 법률 및 보건 등 12개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에서 따라 추가적인 검토 분야를 설정해 놓고 각 국가 간의 양허요구 및 한국의 양허내용과 일정을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¹⁷⁾

한국 서비스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에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48%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50%를 훨씬 상회하였으며

17) 홍동문, 전게서, p.259.

2010년에는 58.2%로 상승하였다(<표 2-9> 참조)¹⁸⁾.

고용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은 더욱 현저한 바,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에는 34%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45% 정도로 상승하였고 1990년대에는 50%를 넘어섰으며 2010년대에는 68.8%에 달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¹⁹⁾.

<표 2-9> 한국 서비스산업의 GDP와 취업 비중 및 무역현황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GDP 및 취업 비중	서비스업	44.3 (34.3)	43.7 (32.4)	48.0 (38.6)	49.0 (45.6)	51.5 (47.7)	54.6 (54.8)	57.3 (61.2)	59.0 (65.2)	58.2 (68.8)
	제조업	18.5(1 4.2)	22.2 (19.9)	24.6 (22.7)	26.7 (24.3)	26.6 (27.9)	26.7 (23.6)	28.3 (20.3)	27.5 (18.5)	30.6 (16.9)
	기타산업	37.2(5 1.5)	34.1 (47.8)	27.4 (38.7)	24.3 (30.1)	21.9 (24.4)	18.7 (21.6)	14.4 (18.5)	13.5 (16.3)	11.3 (14.3)
무역 현황	수출	NA	NA	49.2	51.8	102.4	237.7	315.4	497.4	827.2
	수입	NA	NA	37.4	36.1	103.4	259.6	335.8	597.0	939.5
	수지	NA	NA	11.8	15.7	-1.0	-21.9	-20.4	-99.6	-112.3

주: 괄호 안은 취업비중을 나타냄, 기타 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을 포함함, NA: 자료 없음. 단위는 %, 억 달러임.

자료: GDP 비중과 무역현황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취업비중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은 제조업 주력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급속히 서비스산업이 성장하였으나 최근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총산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²⁰⁾.

18) 최문 외 2인, 전계서, p.219.

19) 최문 외 2인, 상계서, p.219.

20) 박상찬, “한중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p.21.

제3절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1. 한국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 양허안을 2003년 3월에 확정 제출하여 2004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진행하였다. 기존 라운드 대신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여 다자간무역협상을 시작하였다. 서비스협상은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시청각, 교육, 보건, 법률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 업종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1차 양허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 분야를 설정해 놓고 각국 간 양허요구 및 한국의 양허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하였다²¹⁾.

서비스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한국의 핵심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의 투자 감소, 생산비용의 인상, 설비의 해외이전 등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성장동력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까지 서비스산업은 명목 GDP의 58.0%와 총취업자 수의 73.0%를 점유하였다. 한편 한국의 서비스무역도 최근 크게 증가하여 2011년의 수입총액은 1011.1억 달러, 수출총액은 약 95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와 달리 장기적인 적자 상태에 있으며 2011년에 약 5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²²⁾.

그러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미진한 것으

21) WTO · DDA 서비스협상, 외교통상부, 2003.03.

22) 최문 외 2인, 전거서, p.219.

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이 한국의 연간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하여,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지역) 홍콩의 90%, 싱가포르와 대만의 66%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지만, 제조업 생산성 수준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품교역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흑자가 나타난 반면 서비스교역에서는 적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²³⁾

2. 한국 정부의 개방정책 방향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은 제품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자유화가 진행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해 분명하고도 일관된 정책목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방향이 기조를 이루어 왔다.

최근에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사회체계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기에 걸쳐 구축되고 정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²⁴⁾.

한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향후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서비스산업의 환경 동향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제고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의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유대 관계는 금융, 관광, 운송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서비스교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밍그라빠. 2017,04,10 검색.

24) 산업연구원, “서비스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16호 (2004-37), 2004, p.8.

제4절 중국 서비스산업의 현황

1.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

중국 경제는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중에 서비스무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이 과거 강하게 보호해왔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거의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총 12개 대항목 중 10개 항목, 160개 세부항목 중 100개 항목에 대해 개방을 약속하였으며 시장개방 비율은 62.5%에 달한다. 이는 개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 약속이다²⁵⁾.

세계 서비스무역의 확대에 따라 중국 서비스무역이 넓은 시장을 제공하였다. 2000-2014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세계 순위는 <표 2-10>과 같다. 2000년 서비스무역 수출입액 순위가 각각 14위와 9위에서 2014년에는 5위와 2위로 상승하였다.

<표 2-10>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입 세계 순위(2000-2014)

시간	서비스무역 수출액 순위	서비스무역 수입액 순위
2000	14	9
2002	12	9
2004	10	9
2006	10	7
2008	6	6
2010	6	2
2012	6	4
2014	5	2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25) 이은경, “중국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2008.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제조업이 생산적 노동이고 서비스산업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인식하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오랫동안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장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표 2-11>과 같이 중국은 현재 서비스산업의 발전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은데, 서비스무역 수입액과 수출입액은 2위권이지만 수출액은 5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1> 2015년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입 국가 순위

순위	서비스무역 수입액	서비스무역 수출액	서비스무역 수출입액
1	미국	미국	미국
2	중국	영국	중국
3	독일	독일	영국
4	프랑스	프랑스	독일
5	영국	중국	프랑스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中国服务贸易统计(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산업분류에 있어서 제1산업에는 임업·농업·목축업·어업이 포함되고 제2산업에는 제조업과 전기·수도업·가스 및 건축업이 있으며, 그리고 제3산업에는 제1산업과 제2산업 이외의 기타 모두 산업이 포함되었다.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제3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개칭하고 통계 문건에서만 제3차 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식적인 정부문건에서는 전부 서비스산업으로 명칭을 바뀌었다²⁶⁾. 다음 <표 2-12>와 같이 1980년의 경우 제3산업의 비중은 22.2%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중국 정부가 점차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12년 처음으로 45.5%로 제2산업이 45.0%를 초과하였고 2015년에는 50.5%로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점하였다. 국내 생산총액 중 제3산업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6) 최문 외 2인, 전계서, p.97.

<표 2-12> 중국 국내 생산총액 산업구성(국내 생산총액=100)

기간	제1산업	제2산업	제3산업
1980	29.9	47.9	22.2
1985	28.1	42.6	29.3
1990	26.7	40.9	32.4
1995	19.7	46.7	33.7
2000	14.7	45.4	39.8
2001	14.1	44.7	41.3
2002	13.4	44.3	42.3
2003	12.4	45.5	42.1
2004	13.0	45.8	41.2
2005	11.7	46.9	41.4
2006	10.7	47.4	41.9
2007	10.4	46.7	42.9
2008	10.3	46.8	42.9
2009	9.9	45.7	44.4
2010	9.6	46.2	44.2
2011	9.5	46.1	44.3
2012	9.5	45.0	45.5
2013	9.4	43.7	46.9
2014	9.2	42.6	48.2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服务贸易和商贸服务业司 2015 中国服务贸易统计 (중국 상무부 2015 서비스무역 통계 참고 정리)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 대회 이후 서비스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중국 서비스산업 증가액은 341,567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2013-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8.1%로 국내생산 총액은 7.3%보다 0.8%가 더 높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13-2015년 중국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의 연 증가율이 5.8%를 기록하였다. 2015년까지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전국 각 업종 취업자 수의 42.4%를 점하여 2012년보다 6.3% 증가하여 제1산업과 제2산업의 14.0%, 13.2%를 초과하였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산업이 사회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서비스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역사의 축적과 과학기술 문제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전통부문의 비중이 높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지역별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동부지역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빠른 반면 서부지역은 비교적 느리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동서부지역의 서비스무역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중국 정부의 개방정책 방향

1)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

12·5 시기(제12차 5개년 계획, 2010-2015년)는 샤오강 사회(小康社会) 건설의 중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의 심화, 경제구조의 조정, 서비스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기간 동안 경제구조의 조정과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대외개방 및 전체 국력이 증가될 것이며, 고용증대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 소비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5 시기 중국 서비스산업은 발전의 호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환경을 보면, 세계화의 심화 및 세계경제의 시장요구와 성장 배치가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 국제경제질서를 새롭게 조정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의 기회가 증가하였다. 국내적 환경을 보면,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의 발전에 따라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도 경제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5 시기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과 경제구조 조정, 산업구조 최적화를 서로 결합해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2·5계획 개요’의 주요 내용”, Vol.14 No.1, 2012.2.3 참조.

야 한다. 서비스산업과 공업, 농업을 융합하고 새로운 기술, 공예,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내수 확대, 국민생활수준 개선을 상호 결합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증가하는 물질과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킨다.

셋째,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취업 증가, 노동수준의 향상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따라 취업자 수를 늘리고 인재를 육성하여 인재가 풍부한 국가로 전환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를 서로 결합해야 한다. 경제동력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와 수출 병존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촌 인구의 도시화가 필수적 조건이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으로 전면적 발전과 중점 발전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 전통 서비스산업과 현대 서비스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생산성 서비스산업과 생활서비스산업을 함께 발전시킨다.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체 서비스산업을 촉진한다.

여섯째, 서비스산업의 개혁과 개방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개혁과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시장개방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며 경쟁을 통해 발전을 추진한다.

12·5 시기 중국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산업 승급을 전략적 중심으로 삼아서 생산성 서비스업의 가속적인 발전 및 생활서비스산업을 집중 발전시키며 서비스산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12·5시기 중국 정부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금융서비스산업

금융시장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순순환적인 발전과 창의성 있는 금융서비스산업을 추진한다. 대형 금융기관의 종합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이용하고 금융서비스산업은 전문화, 특색화, 정규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삼농(농업·농민·농촌)문제와 중소기업의 발전환경을 개선한다. 금융서비스산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㉞ 운송서비스산업

철도여객 전용선과 지역 간 간선화를 가속화하고 고속철도를 발전시키며 대규모의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농촌 도로를 개선하여 도시화 확장을 가속시킨다. 내륙항로 건설을 추진하고 내륙운송 표준화와 규모화를 추진한다.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을 구축하여 광역시스템을 완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발전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우선의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도시 대중교통시스템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간 공공교통 일체화를 구축한다.

㉟ 현대 물류서비스

제3자 물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류자원을 우선적으로 재통합 이용하고 서비스 능력을 확장하며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공업품, 농산품, 광산품 등 중점 분야의 물류 발전을 추진한다. 물류서비스 발전구조를 최적화하고 물류 원구 등 물류기능 접합구의 순차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현대적인 물류서비스 능력을 추진하고 사회화, 전문화, 정보화의 현대적인 물류서비스 시스템을 건설한다.

㊱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12·5 시기 에너지 절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지원, 세금우대,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제공한다.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자원화 활용 등 순환경제 전문업체를 중점 발전시킨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련 법률, 법규 기준의 완비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감축 목표 달성 심사를 강화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추진한다.

㊲ 인적자원서비스

정부의 정책지원과 환경조성을 중점으로 인적자원 창의적인 발전과 차이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 체제를 발전시키고 각 영역은 국민들이 요구를 만족시킨다. 전문기술인재 집단의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그들의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지원과 사회의 지지를 서로 결합한 고급인재양성 훈련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직

업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직업교육훈련 자원을 종합하여 이용하면서 기업과 직업학교를 활용하여 고급기능 인재양성 기지를 설계해야 한다.

㊤ 문화서비스

12·5시기 중국정부는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문화산업 공공서비스 건설하고, 특색 문화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중점적으로 지지하여, 문화산업은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경영한다.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제로 전환하며 공공성, 공익성 문화산업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국제문화시장을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달성해야 한다. 문화예술 산업과 인터넷 문화산업을 추진하며, 방송과 영상산업 및 신문출판 산업 등 전면적으로 문화산업 체제를 건설한다.

㊤ 관광서비스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국내관광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관광을 확대한다. 과학적인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보호를 동시 진행하며, 기초건설을 제고한다. 민영 중소 관광기업을 지원하고 농촌 관광을 추진한다. 관광 공공서비스 체제를 건설하여, 관광 공공서비스 다원화 발전하며, 국제적인 대형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전력적인 지주 산업 된다.

중국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과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수출무역 발전방식을 전환하며, 적극적인 서비스무역 발전과 외자투자 합리적으로 활용한다. 국내 대형 수출 서비스무역은 ‘走出去’ (밖으로 나가다) 전략을 따라 국제 서비스무역 시장을 진입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시장경제 개방과 체제완선하고 더 넓은 범위, 넓은 영역과 고차원적인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여한다.

서비스무역 추진을 하기 위하여 중점 서비스산업 수출과 수출구조 진급을 추진한다. 운송서비스, 관광서비스, 건설서비스 등 전통서비스 우세를 이용하여, 문화예술, 게임, 애니메이션, 신문출판, 방송과 영화 등 중국 특색적인 수출 서비스무역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통시서비스, 금융서비스, 회계, 컴퓨터와 정보, 박람회 등 현대 서비스무역 육성하며, 자주 지적 소유권과 일류 브랜드 서비스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서비스무역 법규를 보완하고 체제완선을 추진하며, 서비스무역 법률 제도

를 완비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외자의 이용 영역을 확대하여, 구조 최적화와 체제완선을 통해 외자 이용수준을 제고한다. 외자투자 방향을 인도하고 농업기술서비스, 교통운송서비스, 현대물류서비스, 은행서비스, 보험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산업을 확대한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시범구를 점차 확대하며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외자투자의 지역별 구조 개선하여 중서부 지역 외자투자를 추진하며, 동부 지역 외자투자 수준을 제고해야한다.

안정적인 ‘走出去’ (밖으로 나가다) 전략을 실시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走出去’ (밖으로 나가다) 전략을 추진한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习近平) 정부가 당나라(육상)와 명나라(해상)의 실크로드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대규모 대내외 프로젝트다²⁸⁾. 육상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건설공사를 주도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이들 지역에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함으로써 철강, 시멘트 등 중국 전통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한다²⁹⁾.

서비스산업 개혁과 개방을 심화하여 규제기관을 시장관리를 강화하며, 체제완선과 정책 환경을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개방영역 확대하고 외자투자의 법규를 완선하며, 외자투자 균형으로 인도해야한다. 각 지역은 현지기업을 대해 개방한 영역은 다른 외래지역 기업도 개방해야한다. 전국적인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한다.

전신과 철도 등 서비스업 개방을 심화하여, 투자주체 다원화 실행하며 유효경쟁의 시장구조를 형성해야한다. 문화예술, 방송, 영상, 신문출판, 교육, 의료, 보험, 체육 등 시장화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을 추진하며, 시장공급 증가를 하기 위하여 사회자금을 인도한다. 사회자금은 금융서비스산업, 상업유통 산업, 전신서비스, 의료보험서비스, 문화서비스산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유입을 이도하고,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발전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지원하며, 서비스

28) <http://blog.naver.com/kitablog/220365296883>. 2016.10.25. 네이버 검색.

29) 이봉걸 연구위원, “중국의 꿈(中国梦)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5. pp.1-6.

산업 전문화와 사회화의 수준을 제고한다.

서비스산업의 체제를 보완하고 경제 발전방향전환, 구조조정 및 내수확대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중국 서비스산업 국제화를 추진한다. 국내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상업서비스, 관광서비스, 체육서비스 등 인증제도가 실시해야한다.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 특색적인 브랜드 평가제도가 건설하여, 브랜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상단과 기술서비스 체제를 창립해야한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0년~2015년)을 통해 경제규모 세계 2위를 달성하였다. 1인당 GDP는 7800달러로 높아졌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45.5%로 제2산업 45.0%를 초과하였다. 2015년 50.5%로 국민경제에 절반 이상을 점유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중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경제성장 속도보다 높은 성장을 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 2015년 50.5%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은 앞으로 중·고속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5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건의(이하 건의)>를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시진핑 정부가 주도한 첫 경제 발전 정책이고, 2020년 샤오강(小康) 사회 진입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경제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5 계획 건의안을 통해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과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경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³⁰⁾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의 5대 이념으로 ① 혁신(创新), ② 균형(协调), ③ 녹색(绿色), ④ 개방(开放), ⑤ 공동향유(共享)를 제시하였다. 전면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발전이념 다음과 같다.

30) <http://blog.naver.com/mangaejang/220821143309>. 이슈분석,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 초안과 시사점' 2016.10.28. 네이버 검색.

<표 2-13> 전면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발전이념

발전이념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주요 정책 과제
① 혁신(创新) 발전	혁신(创新)이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임 이론·제도·과학기술·문화 혁신추진	발전의 신동력 육성 발전 신공간 개척 혁신 추동전력의 심화실시 농업현대화의 전력 추진 산업체제 구축 발전 신체제 구축 혁신과 거시 통계방식 완비
② 균형(协调) 발전	균형(协调)은 건강한 발전의 내재적 요구사항. 도시·농촌균형, 경제·사회균형, 신형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촌현대화 동시 발전, 소프트 파워 확대	구역 균형 발전 도시·농촌 균형 발전 물질·정신문명 균형 발전 경제·국방 융합 발전
③ 녹색(绿色) 발전	녹색(绿色) 지속적 발전의 필수조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자원 절약형, 친환경건설, 사람·자원의 조화 발전,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글로벌 생태안전 공헌	사람·자연의 화해공생 촉진 주체공능구 건설 가속화 저탄소·순환경제 발전 자원절약과 고효율 이용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
④ 개방(开放) 발전	개방은 국가 번영을 위한 도로. 호혜공영 개방, 내수·외수 협조, 무역 균형, 외자유치와 외자투자의 동시 중시, 자본과 기술유입 병행, 대중적 개방형 경제,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및 발언권 확대, 이익공동체 구축	대외개방전략 구도 완비 대외개방 신체제 형성 일대일로 건설 추진 대륙과 HTM 협력 심화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국제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⑤ 공동향유(共享) 발전	공동향유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 국민을 위한 발전·국민에 의한 발전·발전성과의 향유 견지, 발전의 성과를 국민의 공유하는 공동부유 지향	빈곤 탈피 공정 실시 교육의 질을 제고 취업·창업 촉진 소득격차 축소 공평·지속가능 사회보장제도 건립 건강중국(健康中国) 건설 인구 균형발전 촉진

자료: 양평섭, 박민숙,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p.5-6 정리

중국이 종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정책과 대외개방 가속화를 하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독점성 공공서비스(전력, 통신, 교통, 석유,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경쟁성 부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³¹⁾.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대외개방이 한층 확대될 것이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금융과 의료, 문화 및 체육 등 산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 민간은행이 진입기준을 낮추고 병원, 의료설비, 의료서비스, 의약품 등 의료산업과 문화 및 체육 산업도 개방 폭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³²⁾.

2) 중국정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시행

상하이를 첫 시험장으로 한 중국정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외국인 투자 영역, 금융제도, 통관정책 등 주요 무역투자 인프라를 국제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다³³⁾.

자유무역구 전략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제경제 정세에 따른 순응이자 외부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외 경제리스크를 극복하여 개방형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환경을 맞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경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新성장 동력의 부재, 생산능력 과잉 등 국내외 경제성장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자유무역구 전략 보급을 통해 글로벌 경제통합 및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하며, 동시에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³⁴⁾.

31) 양평섭, 박민숙,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5.

32) 산업연구원, “13.5 계획중 주요 산업 발전 방향”, 산업정책해설, 2015.12. p.26.

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KOCHI 자료, 16-012, 2016.11, p.4.

3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기업 투자 장려 업종은 크게 6개 분야 14개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금융, 운송, 상업, 전문 서비스업, 문화산업, 의료·교육·장려 업종별 정책 방향 및 동향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2013년 9월 1차로 푸둥신구(浦东新区) 소재 4개 보세구(外高桥保税区, 外高桥保税区, 外高桥保税区, 上海浦东机场综合保税区, 总面积 28.78km²)가 지정되었고, 2014년 말에 루자꾸이 금융무역구(陆家嘴金融贸易区), 진차오 수출가공지구(金桥出口加工区), 장장 하이테크원구(张江高科技园区)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면적이 120.72km²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하이 시범구의 핵심 목표 중 하나에 서비스무역 편리화가 포함되었다. 주요 서비스 부문은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각 무역구의 특징 및 현 정책(허용 범위, 제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 금융서비스

상하이 시범구의 핵심은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의 영역하며, 통상적으로 상하이 시범구에서 금융개혁을 위해 시행되는 금리 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위안화 그리고 국제화와 외국 금융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 개방 등이 과제이다.

상하이 시범구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크게 방향과 개방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방향의 경우 외국 금융시스템의 시범구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와 중국의 금융기관 및 개인의 해외진출을 허용하는 조치가 동시에 추진된다. 일례로 상업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 설립 자격을 외자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외자독자 은행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참여 확대가 가능해졌다. 둘째, 개방대상의 경우 외국 금융시스템과 중국 민간자본이 같이 고려된다. 일례로 외자 금융기관과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하여 국내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산업 진출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이 유통성을 확보할 통로가 확대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끌어들여 통상적인 대외개방과 함께 국내에 대해 개방으로서 국내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시장 진입규제 보완적인 시행하고, 진일보하여 중국 금융기관이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³⁵⁾

(2) 의료서비스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독자) 의료기관을 설립을 허용하여, 획기적인 개방조치를 발표하여, 기존의 여러 제한사항 중 지분비율 제한(외국 측 투자 조치를 보유 자본 70% 이하)을 폐지하였다. 2014년에는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이 더욱 심화되었으나, 2015년에는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도를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초기에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에 따라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독자 의료기관 설립이 다시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³⁶⁾ 단지, 보세구이기 때문에 의료설비 구입 시 면세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의료인의 출입국 허가가 편하다는 정도의 혜택이 밖에 없다. 독자 진출이 허가최소 후 진출을 문의하는 외자 의료기관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3) 법률서비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2013년 9월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 중국 법률사무소와 외국 법률사무소의 업무협력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외 법률사무소 업무협력 방식 및 시스템 시범업무를 탐색하는 것에 관한 방안」,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35) 무역구 내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투자용자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무역구 출범 이후 신규설립 금융리스회사가 400여 개 새로 급증하면서 운영자산이 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36) 자유무역시험구 내 병원 설립 시 上海衛計委에서 의료기관 설립허가 증명서,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서 외자확인증서, 공상관리국에서 영업허가서를 각각 순차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실제 병원 착공에 들어가면서 관련 설비, 내부 시설 등 세부적인 허가 절차가 있어 진행단계에서 상당한 시간 및 자본의 소요가 요구된다.

중·외 변호사 법률고문 상호파견 실시 방안」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개방조치를 발표하였다.

2014년 초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외합자변호사사무소 설립허용 이후 동년 11월 중외합자변호사사무소 연합운영을 승인하였다.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표처를 이미 설립하는 외국변호사사무소는 중국변호사사무소와 법률 서비스 상담 등에 관한 연합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로 연합 운영기간 쌍방의 법률지위, 사무소 명칭, 재무관리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민사책임도 각자 부담하게 되었다.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와 중국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인수는 3명 이하,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이다. 중국 법률사무소는 설립 3년 초과하여, 전문 변호사 2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연합운영의 자격이 부여되며, 또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외국 변호사는 해외 법률고문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률고문의 역할만 가능하게 되었다³⁷⁾.

(4) 교육서비스

상하이 시험구에서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을 발표하여 18개 영역에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여기에 교육훈련 분야가 포함되었다.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 의하면³⁸⁾ 교육 분야는 외국 교육기관, 기타 조직, 개인은 중국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독자로는 설립할 수 없지만 합작으로는 설립할 수 있고, 학제가 없는 직업기능 교육학원은 독자로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험적인 개방을 통해 교육시스템을 체제화하고 개선시켜 자국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시험구 정책이 시행된지 몇

37) 2015년 4월 15일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외법률사무소 연합운영 시범사례가 탄생했다. 베이징 시판선로펌(北京市奮迅律師事務所)과 미국 베이커&맥킨지(Baker & McKenzie) 로펌이 연합운영을 개시하였다.

38) 금융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의 4개 조항에서 14개로 증가, 문화·체육·오락업은 8개에서 24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모호했던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외자에 대한 개방을 축소한것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년이 지났지만 공간적 범위 및 위치의 제약성, 관련 내용의 모호성으로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방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개방도도 점차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하이 시험구에서 이뤄지는 非學制 직업기능 분야 교육의 외자독자를 허가한 점을 시작점으로 할 수 있다³⁹⁾.

(5) 관광서비스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 시험구 내 중·외 합자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대만 제외)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처리기준을 완화한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여행사를 유치하여 상하이의 관광서비스 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중국 관광산업 분야는 전체 서비스 분야 중에 개방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험구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로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에 대한 자격 부여 관할을 이양하였다. 지방정부는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추가 개방 확대를 통해 향후 관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⁴⁰⁾.

(6) 문화콘텐츠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에 따라서 문화콘텐츠 분야를 산업화하였으며, 국내 산업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통하여 단기간에 빠르게 규모가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산업경쟁력은 약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산업 전반의 개방도도 낮은 편이다.

2013년에는 자유무역시험구 운영로드맵을 통해 문화 콘텐츠 개방정책이 대거 발

39) 노수연 외 3인, 전게서, 2015, pp.148-153. 참조정리.

40) 노수연 외 3인, 상게서, 2015. pp.154-157. 참조정리.

표되었다. 외자 기업의 게임기 설비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며,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도 취소하였다,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을 허용하며, 자유무역시범구 내 서비스 제공에 한해 외자 독자 엔터테인먼트 설립 등을 허용 하였다.

2014년 4월 상하이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문화시장 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을 발표하여 게임기·오락기의 판매와 서비스, 공연기획 및 오락장소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시하였다. 심사비준 권한은 상하이시 문화라디오 영화TV방송국(上海市文化廣播影視局)에 있으며, 내용심사를 통과하면 중국시장에서 게임기 및 오락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⁴¹⁾.

41) 대표 운영사례로는 201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콘솔게임기 독자생산 허가를 취득했으며 자본금은 3,340만 달러이며, 2014년 10월에는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네덜란드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외국인투자 독자 공연기획사로 등록하였다.

제3장 한·중 서비스산업의 협력방안

제1절 한국측의 서비스산업의 협력방안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에 산출, 고용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형의 산업고도화가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초기수준에 유지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양국은 WTO체제에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표 제출에 따라 한·중 전체 교역량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세에 보이고 있으며, 세계무역규모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잘 관망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상품의 교역이나 노동비 차이를 통한 제품가격의 저렴화를 위한 투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과 사람 및 기술 등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무역 교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화와 산업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파악하고 양보다는 질을 위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시장 차원적 따라 마케팅전략과 유통체제를 수립하고,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제품인증과 상표권 및 특허권의 등록은 필수라고 생각된다⁴²⁾.

중국의 산업구조가 아직은 개발도상국 초기기준에 있지만 신속적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의 교역증대에 비례하여 서비스무역이 증대에 따라서 새로운 무역마찰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신중무역마찰과 무역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한 차

42) 김미정, “중국의 서비스수출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9.25. p.336.

원 높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무역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반드시 서비스업의 비중이 교역에서 단연 우위를 점할 것인 바, 서비스 산업의 현대화와 발전의 우위를 확보하는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내륙개발,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서부지역개발 및 동부 지역개발 등의 거시경제정책목표의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하여 개방양허표에 제시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대중국 진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대규모 시장이 개발에 따라 21세기에는 그 교역량규모가 거대한 수준으로 증대하게 될 것이다⁴³⁾.

중국 정부의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목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중국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우대조치와 시장개방 다 높은 수준을 유지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 간 지리적과 경제교류 우세에 따라 시작하자마자 다른 국가와 경쟁도 많이 줄 수 있다.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를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목표를 참여하면 중국 민간의 좋은 이미지도 받을 수 있다.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을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유·무상 원조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황사, 조림 등 환경보호, 교육 NGO 지원 등 호혜적 분야를 위주로 원조가 추진되었다. 또한 현재 중국은 신농촌 개발과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 및 서부대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위한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유·무상 원조와 기업협력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이 내부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중국지역별 투자다변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에 가져올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한국은 경제성장을 상승 및 고용증대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한·중교류는 이제 단시간 인건비 등 저렴한 생산요소 비용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공동 경제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국제분업 구조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한·중 경제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에 급증세를 기

43) 홍동문, 전게서, p.259.

록하였으나, 2003년 이후 중국의 경제 저속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2년 양국 수교이후 2014년까지 중국 대한국 직접투자는 약 1100배를 증가하였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우세를 이용하고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한국의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는 양국이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단지 설립, 개발, 운영, 기업투자 증진 및 기타 방식에 관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산업협력 단지이다⁴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를 국제적인 서비스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여 서비스산업 개방을 확대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공을 인해 상하이외 새로운 4개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하였으며, 자유무역시험구 거점으로 연결하면 시진핑 주석이 제의한 일대일로 정책의 중요 연결점이 될 것이다. 한·중 새만금 경합단지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서로 연결되면 한·중 양국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중국측의 서비스산업의 협력방안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30년 동안 경제를 급속히 발전하였다. 그 30년 동안에 세계 각국의 자금과 기술 등이 유입되고 중국 국내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정부의 외국기업우대정책 등을 통해 중국은 “세계공장”(世界工厂)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선진 기술과 중국국내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제품가격의 저렴화를 이루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조업 위주로 발전하였으며, 1992년 중국 국무원은

44) 장은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활용 및 법제 지원방안”, 한중법학회, 2016, p.244.

「제3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결정(关于加快发展第三产业决定)」을 발표하여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제10차 5개년 계획 시기에서부터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내수시장을 대대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서비스시장 개방, 지역별 발전 정책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에 한·중간 경제협력 규모는 양적과 질적으로 동시에 확대되었으며, 양국의 서비스 총 교역액은 증가하며 협력영역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战略合作伙伴) 관계를 형성하고⁴⁵⁾ 같은 한자문명권(汉字文明圈)과 지리적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사회경제와 인적교류는 계속 증가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어, 양국 간 경제 및 교류가 더욱 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0년 이후부터 무역마찰 해소와 현지시장 진출 확대, 해외 우수인재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경험사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별로 시범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⁴⁶⁾.

한·중 양국은 2015년 FTA 발효와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제의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등으로 향후 각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 대학과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을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고등 인력 양성 및 활용을 할려면 우선 학교와 기업의 요구가 적합한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 중국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어에 능통한 인력과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에서 학생을 선정하여

45) 1992년 한·중 첫 수교 때는 양국관계는 '우호협력관계'로, 1998년에 '협력동반자관계'로 정하고 2003년에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2008년에 계속해서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는데 2014년에 양국 최고 지도자가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깊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6) 장은정, 상계서, p.242.

한국의 대학이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진입하며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국내소비 진작과 중국 유학생 귀국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중외합자대학(中外合資大學)을 설립하여, 외국대학과의 합자를 통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분교(分校)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지사나 협력 기업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을 제고하며 글로벌 현장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정부 지원 정책과 민간교류를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물류성과지수(LPI)에 따르면, 중국은 종합순위 26위를 기록(2007년 30위)하며, 한국은 2012년 종합 순위 21위를 기록(2007년 25위)하였으며,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물류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서비스무역 측면에서 볼 때 산업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으며 각국 정부는 물류산업이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⁷⁾.

중국은 경제성장이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여,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계속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물류서비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인프라 개선과 법률, 법규를 정비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물류의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하현대적인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물류산업은 생산자에 의한 직접물류에서 제3자 물류⁴⁸⁾(3PL: Third Party Logistics)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외자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물류산업은 창고 및 운송 등 관련 서비스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물류표준화, 정보화, 물류전문인력 양성, 복합운송 등 다양한 과제에서 양국 간 물류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물류산업 협력은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협력으로, 투자업종, 투자지역, 투자목표, 진출방식 등에 구별하여 양국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산업의 정보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선진 IT기술을 활용하

47) 김천근, “한중 물류협력 현황과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참고정리

48) 제3자 물류란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NAVER지식백과 NEW경제용어사전 2016.12.01. 검색

여 중국 제3자물류 시장에 진입하며, 중국 본토기업과 협력하고 물류표준화와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양국 정상은 <향후 연합을 향한 한·중의 협약>을 체결하고, 다방면에서 양국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중에 한·중 인문 교류 유대 강화가 매우 중요시 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정부가 제안한 신유라시아대륙 발전 전략은 유사점이 많다⁴⁹⁾. 양국의 문화 산업의 발전 전략은 모두 한·중 양국 협력의 방식을 세계로 진출하는데 편향되어 있다. 문화 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 산출 효과를 매우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의 보조성 핵심 산업이며, 창조경제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국의 문화 협력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으로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매우 현실 의의를 지니고 있다.⁵⁰⁾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에서 문화서비스분야에 국한해 한·중 FTA 협상의 성과를 보면 여타 서비스분야와는 다르게 중국 측으로부터 다수의 양허 또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⁵¹⁾

한·중 양국은 경제와 인적교류가 증가하여 문화산업이 공동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문화산업은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부가 유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공동적인 참여하는 시장화의 다기능성이 서로 적용되는 플랫폼을 형성 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도하는 지위를 제공하며,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의 공급이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문화산업 시장화의 체제와 시스템을 제공하며, 한·중 양국 정부는 문화산업 협력의 추진과 심화 발전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공평하게 경쟁하여 양호한 시장 환경을 있으면서 문화산업은 급속 발전을 할 것이다.

49) 러시아는 2015년 1월 기존의 러시아,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아르메니아를 합류시켜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보다 수준 높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시켰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 하에 협력의 지평을 유라시아에서 아태지역까지 넓히려는 소위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0) 金銀峰, “한·중 文化产业의 현황과 文化貿易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15. pp.86-87.

51) 정상철, “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30집 제1호, 2016, p.245.

2015년 7월 4일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인터넷+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 의견 《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터넷은 소비영역으로 생산영역에서 이동을 추진한다. 생산수준과 생산창신, 경제사회 발전을 새로운 동력이 된다. “인터넷+”는 모두 전통산업과 연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탄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고 서비스화를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를 완비하며,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동력을 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금융서비스 모델 중에 모바일 지불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이동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지불을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다. 중국은 광군제⁵²⁾(双十一), 즉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2009년 솔로들을 위해 처음 시작한 쇼핑 할인행사여서 전 세계에서 관심 집중되고 있다. 2015년에 총 지불 중에 68%를 모바일 지불을 차지하고, 2016년에 90% 이상을 차지하며 급속히 성장하였다. 중국은 알리페이⁵³⁾ 약 8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제1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2015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한국정부 첫 번째 국가에 한국관(韩国馆)을 설립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을 통해 한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입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알리페이는 한국에서 2만 개 이상 가게를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등 서비스산업을 확대할 것이다.

52) 双十一购物狂欢节是指每年11月11日(光棍节)的网络促销日。在这一天,许多网络商家会进行大规模促销活动。双近年来双十一已成为中国电子商务行业的年度盛事,并且逐渐影响到国际电子商务行业。

53)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개발한 전자화폐 시스템이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이다. 2004년 출시된 이후 약 8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제1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제4장 한·중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한·중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한·중 양국은 1992년에 수교 이후 여러 부문에서 동반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985년부터 서비스산업의 위치와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산업 정책을 통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서비스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제2산업을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50.5%로 국민경제에 절반 이상을 점유하였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정식적으로 발효하였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중 양국 수교 이후,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2012년 동안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 투자 증가율은 25.2%를 기록하며, 2012년 양국 간 서비스무역규모는 280억 달러에 달성하였다. 그중에 대중 투자규모는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서비스산업 해외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한국 대 중국 서비스투자 추이

		2001	2003	2007	2008	2010	2012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 투자 (백만 달러)		47	185	1259	1160	827	555
비중 (%)	전체 해외투자 대비	0.6	3.9	5.6	4.9	3.4	2.4
	전체 서비스 해외투자 대비	3.8	9.8	11.8	10.0	9.0	8.1
	전체 대중 투자 대비	7.2	10.2	23.6	30.6	22.7	16.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상기 <표 4-1>와 같이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 투자는 2007년 직전까지 급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진과 한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보다 전체 서비스 해외투자가 더 많은 편이다. 전체 대중 투자 대비는 16.8%를 기록하였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을 수출과 수입 및 무역수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서비스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서비스 수출입의 양을 한국에 비해 2배 정도로 많은편이지만 실제 상품교역의 양과 비해 보았을 때 오히려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2>와 같이 2000년에 한·중 서비스무역 총액은 42.60억 달러이고 그중에서 대 한국 수출액은 23.10억 달러, 수입액은 19.50억 달러로, 중국은 3.6억 달러 무역순차를 가지고 있다. 2004년에 양국 서비스무역은 처음으로 백억 달러 초과하여 101.9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동시에 중국 서비스무역차액도 -0.09억 달러로 나타난다. 2008년에 세계적 금융위기에 돌고 양국의 서비스무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하여 서비스무역 총액 239.6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 이후 2009년에 금융위기로 인해 서비스무역 총액은 약간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다시 232.78억 달러로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⁵⁴⁾.

<표 4-2> 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 총액(2000-2010년)

(단위: 억 달러)

시간	兩國 무역 총액	中 對 韓 수출액	中 對 韓 수입액	무역차액
2000	42.60	23.10	19.50	3.60
2001	45.93	24.35	21.58	2.77
2002	61.57	35.20	26.37	8.82
2003	75.53	37.72	37.81	-0.09
2004	101.92	49.93	51.99	-2.05
2005	124.01	64.43	59.58	4.85
2006	145.16	75.85	69.31	6.54
2007	181.11	89.68	91.43	-1.75
2008	239.60	106.90	132.70	-25.80
2009	184.45	86.69	97.76	-11.07
2010	232.78	102.96	129.82	-26.86

자료: UN service database

주: 무역차액은 계산 후 정리

54) 구어치엔, “한·중 서비스업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p.14. 참조정리

한·중 경제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반면에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따라 중국발 리스크도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1992년의 3.5%에 2015년의 25.3%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 중국 수출증가율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중 양국 간 정치마찰이 발생하면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여행, 금융, 물류 및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은 영향을 더 심각한다.

<표 4-3> 한·중 양국의 서비스 교역 현황(2007~2012년)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교역액	18110.4	23959.4	18445.3	24401.1	26154.0	27946.2
서비스 지급	8967.9	10689.5	8669.0	10651.0	12038.9	12066.7
서비스 수입	9142.5	13269.9	9776.3	13750.1	14115.1	15879.5
서비스 수지	174.6	2580.4	1107.3	3099.1	2076.2	3812.8

자료: 한국은행

<표 4-3>과 같이, 한·중 양국의 서비스 총 교역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서비스수지도 계속 무역순차를 가지고 있다. 2009년과 2011년에 서비스수지는 약간 떨어졌지만, 다음 해는 다시 회복하여 증가세를 2배 정도로 차지하였다. 2007년에 보다 2012년에 총 교역액은 1.5배를 증가하였지만,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2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중 경제교류 심화에 따른 한·중 양국의 교역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수교이후 2014년까지 22년간에 약 37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교역 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첩되는 산업도 확대하였다.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산업에 대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계속적인 향상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출 시장에 중국의 경쟁력을 계속 증가하며, 한·중 양국 간 주력 산업 수출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한·중 서비스산업은 세계 서비스무역 강국에 비해 발전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경쟁력이 부족하며, 시장개방 수준도 낮은 편이다. 또한 중국 서비스산업의 구조도 불균형하여, 여행과 운송 등 전통서비스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발전하여, 동부지역의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빠르고, 서부지역

은 비교적인 느린 실정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불균형 때문에 동서부의 서비스무역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국내 법규와 관리는 다른 서비스무역 강국과는 비교 열위에 놓여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 법규를 지속적인 개선하고 있지만 보완적인 시스템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제2절 한·중 서비스산업의 개선방안

1992년에 한·중 양국 수교 이후,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2012년 동안 한국 서비스 기업의 대중 투자 증가율은 25.2%를 기록하며, 2012년 양국 간 서비스무역규모는 280억 달러에 달성하였다. 그중에 대중 투자규모는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서비스산업 해외투자의 8.1%를 차지하였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은 쉽게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중국 실업문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환경에 활성화를 시키며, 또한 한국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미래에 중국 서비스무역이 더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한·중 양국 간의 경제협력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불경기에 인하여 대외수출과 수입 및 국내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경제둔화가 지속 하는 상태이다. 무역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다. 국내시장의 한계점을 극복하며, 세계시장으로 진입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켜야한다. 따라서 한·중 서비스산업의 증가세 둔화의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 고기술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전자부품, IT등 고부가, 고기술 제품이 가격 우세를 가지고 한국시장 수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를 하며, 혁신형 고부가, 고기술 제품 개발 등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최소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인 강화하는 반면에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중국발 리스크 영향의 심각한 상태가 예상된다. 특히 여행, 문화 콘텐츠, 운송, 통신 등 서비스산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중 FTA,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⁵⁵⁾ 일대일로 등 정책협력과 금융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대일로의 추진에 따라 여행, 운송, 통신, 건설, 문화 등 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채널은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내수 확대, 도시화와 서부 대개발 등에 따라 수요창출이 예상되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진입, 중국의 거시경제 전략(일대일로, 징진지 일체화 등)등에 의한 중국 지역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사회의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관광, 의료, 양로, 헬스, 교육, 통신, 문화 콘텐츠, 교통 등 서비스산업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양국의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 간 서비스산업 구조 불균형하며, 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우선 양국의 서비스산업 영역은 확대하여, 양국의 분업을 명확히하고, 사각 지역과 중첩 지역을 피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한국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산업 중에 중국 우세산업은 여행과 통신, 건축 및 기타 상업서비스 등이며, 한국에서는 금융, 운송, 정부서비스 등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여행, 통신, 상업서비스, 금융, 운송 등)을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공동한 약세 서비스산업은 공동 발전하여, 국제 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넷째, 법적 안정성과 사업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

55)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자개발 은행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52개국이 회원국이며 다른 25개국은 가입 예상국으로 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 은행의 설립을 계획했다. 이 계획안은 역내 37개국과 역외 20개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예상 창립회원국으로 분류되었다. 예상 창립회원국은 은행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합의 안에 모두 서명했다. 2015년 12월 25일부터 은행은 운용되기 시작했고, 수권자본액의 전체 보유량 중 50%를 보유한 10개국이 이 협정을 발효했다.

준의 자유화 약속 및 범위를 통해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과 동시에 서비스산업은 국내 법령이나 각종 조치에 따라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에 따라서 서비스산업 환경을 개선하며, 사업환경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한·중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양국은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의 우대 정책을 보완하며, 투자자유화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 개혁, 중국정부의 경제영역 개입을 감소하고 민간 영역의 시장 진입 확대 등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간 인문교류의 질적 개선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류프로그램 및 민간교류에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한·중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 간 한·중 드라마(영화) 공동제작 등을 통하여 문화적인 교류에 집중하며, 한국정부는 고부가 한류 문화상품 개발을 지속적인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관광, 의료, 휴양 등 연계한 복합 관광서비스를 강화하여 중국 관광객 유입 가속화 노력도 필요하다. 양국 간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인문교류에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전망해 본다.

제5장 결 론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제조업 등 타 산업의 가속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세계 경제둔화와 고용불안에 따라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력에 한계를 인식하며, 소비자 수요 다양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시장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2015년 자료를 보면 서비스산업은 세계 GDP의 $\frac{2}{3}$ 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시기에 중국 경제체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발전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의 목표는 양보다 질은 더 중요하고, 급속히 발전보다 안전 지속적인 발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양국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양적과 질적으로 확대하며, 경제협력의 상호 주요 대상국으로 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자간(兩者間)이나 다자간(多者間)의 지역적 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양국 간 문화와 지리적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사회경제와 인적교류는 계속 증가 하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정식적으로 발효하여, 양국 간 경제과 교류를 더 긴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6월 1일 한·중 FTA 서명식에서 한·중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결 고리가 될 것” 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한·중 FTA를 통한 양국 경제협력과 발전방안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였다.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제의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 물류, 교통, 문화, 여행, 등 서비스산업에 최우선 이익을 받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과잉생산을 해소하여, 신규 투자수요 창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건설 수요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중 경제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서비스산업에도 더욱 긴밀한 관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수요와 서비스산업의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내수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시장의 진입을 위하여 한·중 서비스산업에 협력을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한국의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으며 반면에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산업의 협력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간에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국 기업들의 이익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상호 협력하고 법률적인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아, “一帶一路와 한 - 중 FTA가 새만금산업에 주는 법적 시사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연구원, 2015.
- 김미정, “중국의 서비스수출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金銀峰, “한·중 文化産業의 현황과 文化貿易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15.
- 김중덕, 성한경,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5.
- 김천곤, “한중 물류협력 현황과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 김한민, 김진학, 이호형, 이호영, 「서비스무역 연구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통상정보학회, 2008.
- 구어치엔, “한·중 서비스업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중국 서비스시장 개발전략이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 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2·5규획 개요’의 주요 내용”, Vol.14, No.1., 2012.2.3.
- 박정수, “한·중 FTA시대의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 서비스산업연구실.
- 박정수·이홍식·고준성·박문수·김천곤·고대역·구진경·박지혜,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 박상찬, “한중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산업연구원, “서비스경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16호 (2004-37)」, 산업연구원, 2004.7.30.
- 박진우,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6.04.
- 우레,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0.
- 이봉걸, “중국의 꿈(中國夢)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 2015.5.
- 이재영,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 이은경, “중국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분석”, 「비교경제연구」, 제15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08.
-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양평섭, 박민숙,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
- 정상철, “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30집 제1호, 2016.
- 장은정,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활용 및 법제 지원방안”, 한중법학회, 2016.
- 최문, 김상호, 이천국,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비교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3.
- 崔文, 李天国, 이상빈,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의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3.
- 최용민, “중국의 13.5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6.2.
- 홍동문, “한중 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현황 비교분석”, 「지역발전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한국지역발전학회, 2004.
- 황야난, “중국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5.2.
-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2012.05.
- 현대경제연구원,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2013.3.
- [네이버 지식백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6,11,20 검색정리.
- KIEP북경사무소, “중국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23.
- 陈秋玲, 李怀勇 <中国服务业产业研究> 2010
- 胡景岩 <进入中国服务业> 2008.
- 李承信 <韩中经济交流的发展现状及未来展望> 2013.
- 刘静 陈祯美 <中国服务贸易发展对就业的影响研究> 2013.12.
- 潘海岚 <中国现代服务业发展研究> 2008.

蒲玉 <中国现代服务业发展问题研究> 석사논문. 2014.
 邵丹 <中韩服务贸易现状与国际竞争力比较分析> 2016.
 单丹妮, 常海磊, 孙柳 <中韩服务业合作领域、优势及障碍分析> 석사논문. 2013.
 搜狐网 <2016 中国国际贸易现状和趋势分析>
 魏春竹 <中韩两国间服务贸易互补性研究> 2016.
 谢平, 邹传伟 <互联网金融模式研究> p13. 번역정리.
 夏妍娜 赵胜 <中国制造2015 - 产业互联网开启新工业革命> 2016.02.
 周先旺 《现代服务业知识》 2011.
 中国国家统计局服务业统计司 “十一五” 中国服务业发展报告
 中国国务院 《中国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
 Goldman Sachs, 2012, "Mobile Monetization: Dose the shift in Traffic Pay?"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中国商务部 데이터 참조정리.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index.do>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www/main.do>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chosun.ac.kr/main/main.php>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은행, <http://www.bok.or.kr/main/korMain.action>
 한중FTA, <http://www.fta.go.kr/cn/>
 中华人民共和国统计局, <http://www.stats.gov.cn/>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
 百度, <https://www.baidu.com/>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